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3호 【루계 제24676호】 주체103(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김정은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03(2014)년 9월 18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청년동맹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 15돐을 맞으며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당을 따라 변함없이 곧바로 걸어갈 충정의 맹세가 뜨겁게 굽이치고있는 가운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가 열리였습니다.

나는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동맹조직을 강화하며 청년들을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청년동맹초급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였으며 한평생 청년들과의 사업에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습니다.

일찌기 청년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로 투쟁대오에 묶어세우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오신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홰불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한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신 청년세대들은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의 7.27을 안아왔으며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당과 수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 어렵고 힘든 전구들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훈을 세움으로써 천리마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높이 떨치였습니다. 류례없이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철석의 신념으로 가슴불태우며 사회주의수호전, 반미대결전에서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에 이룩한 청년들의 영웅적위훈과 불멸의 업적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조국의 강성번영도 청년들의 보람찬 삶도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력사에 뚜렷이 새기였습니다. 혁명의 년대와 더불어 창조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온 수령결사옹위의 전통, 영웅적투쟁전통은 우리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벅찬 투쟁의 시대, 주체혁명의 새시대입니다.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천만군민은 앙양된 기세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새시대의 력사적진군에서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청년동맹은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입니다.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고 숭고한 념원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최후승리의 령마루에 높이 휘날려야 할 성스럽고 영예로운 임무가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선군혁명의 폭풍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청년들이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갈 때 우리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고지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온것처럼 오늘의 력사적진군에서 청춘의 힘과 지혜,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령도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습니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당을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당의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단숨에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하는 인민군대의 군인정신, 군인본때를 따라배워 당의 방침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는데서 결사대가 되여야 합니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고 청년들의 가장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선군시대의 청년들은 누구나 총을 잡고 조국보위의 제일선에 서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하여야 하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바쳐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처럼 조국앞에 지닌 자기 세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최고사령관의 병사로서 총을 잡고 초소에 선 인민군군인들은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주체적인 군사사상으로 만장약하고 장수의 기상으로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이 되여야 합니다. 인민군군인들은 자나깨나 싸움마당에 마음을 두고 고도의 격동상태에 있어야 하며 적들과의 결전장에서 선군조선청년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야 합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군사훈련에 성실히 참가하고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자기의 거리와 마을, 자기 공장과 농장, 학교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은 국방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고 도와주는 미풍을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지금 적들은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병들게 하여 당의 품에서 떼여내려고 우리 내부에 불순록화물과 출판물을 들이밀면서 온갖 썩어빠진 독소들을 퍼뜨리고있습니다. 적들이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서 노리는 기본대상은 다름아닌 새 세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말려드는것은 당과 혁명을 배반하고 적들을 도와주는 배신행위, 역적행위로 됩니다. 청년들은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거기에 절대로 말려들지 말아야 하며 말려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투쟁을 벌려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우리 제도를 좀먹는 불량행위를 비롯한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배격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피로써 지켜낸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아름다운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위훈을 떨치는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더없는 영예이고 자랑입니다.

청년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에 용약 달려나가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합니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다그쳐 끝내며 거창한 대자연개조와 대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청춘의 기념비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조국이 주는 전투임무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수행하며 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끊임없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선군조선의 위용을 우주에 떨친 위성과학자들처럼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야심만만한 포부를 안고 두뇌전, 기술전을 완강하게 벌려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과학기술행군에 떨쳐나서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휘하며 자기 부문의 기술에 정통하고 발명과 창의고안의 명수로 이름떨쳐야 합니다.

청년들은 선군청년홰불상쟁취운동, 청년돌격대운동, 청년작업반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앞장에 서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 청년들은 창작의 나래를 활짝 펴고 혁명적창조활동을 맹렬히 벌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혁명적군인문화를 따라배워 고상한 문화정서생활기풍을 확립하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언제나 랑만과 희열에 넘쳐 생활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서 앞장서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금메달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자기 일터를 궁전과 같이,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2면으로 계속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1 면 에 서 계 속

청년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 지식경제시대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책을 읽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누구나 정열가, 독학가가 되여 당문헌들과 혁명교양도서, 과학기술도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전위》신문을 빠짐없이 보아야 합니다.

학생청년들은 앞날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떠메고나갈 강성조선의 역군들입니다. 학생청년들은 20대, 30대에 세계를 놀래우는 과학자, 박사가 될 포부를 안고 열심히 학습하고 또 학습하며 생산실습과 여러 사회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리론과 실천을 겸비하고 다방면적인 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새시대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청년들의 정치생활거점이며 청년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기본전투단위입니다. 초급조직들의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자 곧 청년동맹의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입니다.

지금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청년들의 정치조직으로서의 중요한 위치와 사명에 맞게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일부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본신임무인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지도에 힘을 집중하지 않고있으며 사업을 청년들의 감정과 심리, 정서에 맞게 청년조직맛이 나게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동맹초급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청년동맹강화의 첫걸음으로, 청년운동발전의 기본고리로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청년동맹초급일군대회를 중시하며 이번 대회가 청년동맹의 기층조직들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청년동맹일군들은 청년동맹사업의 중요성과 당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선군시대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을 령도자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로 준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도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동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현시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새 세대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로 키우는 가장 고귀한 영양소이며 청년들을 부강조국건설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입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한평생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생동한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청년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어 그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고향과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는 진짜배기애국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은 곧 신념이며 신념이 없으면 혁명가가 될수 없습니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습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우리 당의 위업은 정당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 모든 청년들이 드놀지 않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을 정상적으로 의의있게 조직하여 청년들이 수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으로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착취와 압박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전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현실은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여 청년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혁명의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입니다. 지금 일부 청년들속에서 언어례절과 인사례절, 공중도덕을 바로 지키지 않아 건전한 사회적분위기와 생활질서를 흐리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 청년동맹에서 도덕교양을 잘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도덕교양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청년들이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도덕규범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안에 세워진 **김정일**장군님을 따라배우는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교양체계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청년교양의 거점인 청년학교에서 학습과 여러가지 교양적의의가 있는 모임들을 자주 조직하여 늘 흥성거리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을 전진하는 시대의 숨결에 맞추어 청년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을 옳바로 이끌어나갈수 있도록 참신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 하거나 우리 시대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지 않게 낡은 격식과 틀에 맞추어 하는 현상을 없애야 하며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동맹조직생활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조직의 귀중함을 옳바로 인식시켜 그들이 동맹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며 조직의 교양과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누구나 동맹규약과 동맹생활규범의 요구를 잘 알고 그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맹생활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동맹원들이 조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지도에서 자각성에만 내맡기지 말고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동맹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고 조직규률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직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동맹조직생활지도를 본신혁명임무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근로청년들은 맡겨진 기술혁신과제와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 학생청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과실력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발휘되고있는 청년전위모범초급위원회,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 청년전위모범학급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청년들이 당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은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정력과 기개를 안고 모든 일을 청년식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동맹초급일군들은 사업을 혁신적으로 설계하고 눈이 번쩍 뜨이게 일판을 벌리며 일단 시작한 일은 단숨에 해제껴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은 대오의 선두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동맹원들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이신작칙은 가장 힘있는 선동으로 됩니다. 동맹초급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으로 동맹원들을 감화시키고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동맹초급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동맹원들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은 동맹원들을 친형제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과 마음을 합치고 한덩어리가 되여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합니다. 동맹초급일군들은 동맹원들의 마음속고충도 남먼저 알고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피며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여야 합니다. 동맹초급일군들은 동맹원들속에서 결함이 나타나면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하고 한번 교양하여 안되면 열번, 백번 교양하여서라도 모든 청년들을 훌륭한 청년전위로 키워야 합니다. 동맹초급일군들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동맹원들을 례절있게 대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서 난관극복의 묘술을 찾아내며 동맹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초급조직을 화목한 집단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은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청년운동사상과 방침을 환히 꿰들고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합니다. 동맹초급일군들은 동맹사업실무에서 막히는데가 없고 정치리론수준과 현대과학기술수준이 높을뿐아니라 정세에도 밝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동맹초급일군들은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며 악기도 능숙하게 다루고 선동연설도 피가 끓게 하면서 동맹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리고 그들을 움직일줄 아는 군중공작의 능수가 되여야 합니다.

각급 청년동맹위원회들이 동맹초급조직들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청년동맹위원회들이 동맹초급조직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면 초급조직들이 전투력이 약화되고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청년동맹이 주저앉게 됩니다.

각급 청년동맹위원회들은 초급조직들과의 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낡은 틀과 사무실적사업작풍을 뿌리빼고 초급조직들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동맹의 말단지도단위이며 동맹초급조직들을 기본사업대상으로 하고있는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각급 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이 초급조직들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도와주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은 초급조직들에 자주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초급일군들을 계발시켜주고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일군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동맹초급일군대렬을 당에 충실하고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며 조직생활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청년들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초급일군대렬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있습니다. 청년중시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영원한 전략적로선입니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조직들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나타나는 편향들을 바로잡아주며 청년동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에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을 제때에 알려주어 초급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주동적으로 작전하고 전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초급조직들에 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기고 제힘으로 끝까지 해내도록 고무해주며 청년들속에서 제기되는 창발적인 의견들을 적극 지지해주고 실천에 옮기도록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이 자립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업조건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게 내세워주며 그들을 자주 만나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실천투쟁속에서 부단히 단련시켜야 합니다. 청년동맹사업에서 모범적인 우수한 초급일군들을 당에 받아들이고 당일군으로도 키워야 합니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가 18일과 1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 15돐을 맞으며 진행된 이번 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청년전위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청년동맹초급조직강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청년동맹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대회에는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을 당의 선군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조직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청년동맹초급일군들과 중앙과 지방의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주체적청년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을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김영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모범적인 청년동맹초급일군들과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의 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선군시대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을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힘찬 구호들을 합창하면서 서한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대회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겨온 주체청년운동사의 갈피마다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주체청년운동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대중적청년조직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각계각층 청년들을 하나의 청년조직에 묶어세우시였으며 동맹기층조직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견실하고 능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우는것을 청년운동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동맹,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을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강한 조직력, 단결력, 전투력을 지닌 조직으로 꾸려나가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평안남도 성천군 향풍리초급청년동맹위원회 제6초급단체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초급단체강화의 불길을 지펴주시였으며 《전 동맹이 초급단체를 도와주자!》라는 구호밑에 청년동맹초급조직을 강화할수 있는 전환적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오늘 주체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으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청년절을 맞는 온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여 최후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청년들을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모든 초급단체를 항일의 불길속에서 위력떨친 강철의 공청조직처럼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꾸릴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여 청년동맹초급조직강화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시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지난 기간 청년동맹초급조직들에서 동맹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대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온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잘 꾸리고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청년들이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에서 총대와 함께 청춘시절을 빛내이며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청년과학자들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힘있게 떨치도록 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수많은 열혈청춘들이 맡은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가치있는 발명 및 새 기술혁신안들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하였으며 청년대학생들속에서 많은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들이 배출되였다.

청년들이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갔으며 대학졸업생들이 최전연과 외진 섬마을분교로 진출하는 미풍도 발휘되였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을 당의 참된 청년전위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단위가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받았으며 청년전위모범초급(분초급)위원회,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보고자는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주체청년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청년동맹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일부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이 동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그들의 애국적열의와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나타난 결함들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초급조직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대오로 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초급단체를 항일의 불길속에서 위력떨친 강철의 공청조직처럼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꾸리며 모든 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고 대담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보고자는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이 모든 청년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며 최후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방침대로만 진행함으로써 청년동맹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그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게 벌려 청년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 건설자, 주인공들로 키워야 할것이다.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즉시 접수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즉시 집행하고 보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움으로써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가 되여야 할것이다.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제국주의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청년들속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4면으로 계속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가을걷이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자

정신력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숙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숙천군에서 가을걷이전투 시작부터 실적을 올리고있다.

뜨락또르, 탈곡기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가을걷이에 들어간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매일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걷이를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의 농업정책의 요구대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군일군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도를 찾기 위해 뛰였다.

군일군들은 처음에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의 적기를 보장하는데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보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농장들에 농기계수리정비와 중소농기구확보를 언제, 어떻게 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고 총화사업도 드세게 진행하였다. 특히 이동식탈곡기로 많은 면적의 포전에 대한 낟알털기를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강하게 내밀었다.

며칠후 군책임일군들은 그 정형을 료해하기 위해 어느 한 농장에 나갔다. 그 농장에서는 이미 농기계수리정비를 끝내고 우에서 내려보낸 설계대로 이동식탈곡기의 부분품들을 조립해나가고 있었다. 별로 문제될것이 없을것 같았다.

그들이 백암농장에 들리였을 때였다. 마침 중소농기구전시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성의껏 마련하여 내놓은 소농기구들가운데는 처음 보는것들도 있었다. 종전보다 실수률을 5%이상 높일수 있게 만든 강냉이알을 털어내는 소농기구는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가을걷이준비를 하면서 창안한것이였다. 그런가하면 자재를 절반밖에 쓰지 않으면서도 능률이 높게 만든 이동식탈곡기도 새로운것이였다. 농기계수리정비를 빈틈없이 해놓은것은 더 말할것도 없었다. 확실히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주인된 자각을 안고 가을걷이준비에 품을 들이였다는것이 알리였다.

책임일군들은 생각이 깊었다.

(과업은 똑같이 주었는데 결과는 왜 서로 차이가 나는것인가?)

두 농장의 현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 대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사고의 기본출발점 즉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관점이 다르면 정신력에서 차이나게 되고 일본새에 그대로 나타나기마련이였다. 한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것은 당의 농업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며 그것을 결사관철하여야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다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떨쳐나서면 백암농장 사람들처럼 좋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그후 열린 군안의 농장일군협의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는 단순한 영농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며 그 성과의 기본요인은 정신력발동에 있다.

일군들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농사결속을 잘하는데 더욱 품을 들이기로 마음먹고 조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강습을 품들여 준비하고 진행한 사실을 례들어 보자.

일군들은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시된 조건에 맞게 군적으로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을 위한 강습을 조직하였다. 여기서는 참가자들모두가 한해 농사결속이 가지는 정치적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새겨안고 적기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일군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농장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강습도 진행하게 하였다.

이 사업은 강냉이, 벼가을과 운반, 낟알털기, 수매에서 나서는 농업근로자들, 초급일군들의 임무를 명백히 정해주고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시켜 분발해나서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무슨 일이든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될 때 성과가 크다.

일군들의 노력이 은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초급일군들은 물론 농업근로자들도 맡은 포전에서 옹근소출을 거둘수 있도록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해 지혜를 합쳤다. 결과 대중의 높은 정신력이 발동되여 강냉이가을걷이시작부터 실적이 올랐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 경우를 놓고보자.

일군들은 경쟁총화평가기준을 옳게 정하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북돋아주고 승벽심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타번지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의 하나가 총화평가사업이기때문이였다.

이를 위해 작업반별, 분조별, 농업근로자별평가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강냉이가 을걷이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났다. 지난 시기같으면 자기앞에 맡겨진 과제를 다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던 농업근로자들이 두몫, 세몫씩 맡아나섰다.

결과 군적으로 강냉이가을걷이를 와닥닥 끝내고 벼가을을 적기에 시작하게 되였다.

벼가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하루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포전을 뜰수 없다고 하면서 혁신을 일으켰다. 벼가을실적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하여 더 뛰여올랐다.

이 군의 현실은 당의 의도대로 대중의 정신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갈 때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적재능력이자 운반실적

강동군 읍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 지어놓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많은 낟알을 허실할수 있습니다.》

강동군 읍협동농장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낟알운반을 한주일 앞당겨 끝낼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존운반능력으로 이처럼 낟알운반을 앞당겨 끝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다시금 새겨안은 일군들은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놓고 생각을 깊이하였다.

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던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운반수단의 적재능력이자 낟알운반실적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일군들은 신들메를 단단히 조여매고 떨쳐나섰다. 하지만 막상 운반수단들의 적재능력을 높이자고 하니 자재를 비롯하여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며 운반수단들의 적재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리였다.

농산 제1, 2, 4작업반이 앞장에 섰다. 이곳 작업반원들은 한알의 낟알이라도 허실없이 제때에 빨리 실어들이자면 뜨락또르련결차의 적재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기되는 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해나가며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일군들은 이 작업반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였다. 그리하여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뜨락또르련결차의 적재함을 개조하였다. 결과 기름을 적게 쓰면서도 종전보다 뜨락또르들의 운반능력을 1.5배이상 더 높일수 있게 되였다.

적재능력을 높여 운반실적을 올리자고 해도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 헛수고로 되고만다. 여기로부터 일군들은 뜨락또르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우선 예비부속품준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그리하여 모든 뜨락또르들에 예비부속품들이 넉넉히 마련되여 가을걷이시작부터 만가동할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은 가까운 포전에서는 달구지로 낟알을 운반할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달구지의 적재능력과 운반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갔다. 그들은 작업반들의 부림소마리수와 달구지대수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대당 하루운반량을 계산해보았다. 일군들은 총낟알운반량의 40%는 능히 달구지로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타산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달구지바퀴들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많은 달구지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부림소관리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부림소관리공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부림소의 영양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였다.

결과 강냉이가을걷이에서부터 그 은이 나타났다. 벼단실어들이기실적을 올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도 마련되였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들처럼 당의 뜻대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적재능력이자 운반실적이라는 관점에서 가을걷이준비를 앞질러가며 실속있게 해나갈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될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선천군 삼성협동농장에서

효과적인 벼이삭말리기방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벼를 잘 걷어들이고 낟알털기를 깐지게 하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벼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선천군 삼성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여기서 그들이 제일 관심한 문제는 포전에서 벼이삭을 잘 말리는것이였다.

벼이삭을 잘 말리지 않으면 털 때 벼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북데기와 벼짚에 섞여나가 귀중한 낟알을 허실할수 있기 때문이였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벼이삭이 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낟알털기를 하는 경우 정보당 수십kg의 알곡손실을 본다고 한다. 특히 낟알을 보관할 때 변질되기 쉽고 쌀을 찧을 때에는 싸래기가 많이 생겨 출미률이 낮아지며 쌀의 품질도 떨어진다.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말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가슴에 새기며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벼가을걷이를 하면서 무엇보다 벼이삭을 잘 말리는데 힘을 넣었다.

이를 위해 우선 논물떼기를 한 후 포전의 마른 정도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논판의 마른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벼이삭말리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

일군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대부분 논이 물떼기를 한 후 10일안으로 말랐다. 이런 논에서는 벼를 벤 다음 논판에 펴서 말리게 하였다. 그 방법을 보면 벼를 벨 때 첫줄은 논판에 그냥 나란히 펴놓고 다음줄부터는 벼이삭을 먼저 베여 눕혀놓은 벼밑둥우에 놓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첫줄의 벼이삭만이 땅우에 닿고 다음줄부터는 이삭이 땅에 닿지 않기때문에 날씨가 좋은 때에는 하루이틀안으로 잘 말라 벼단을 묶을수 있었다.

농장에는 일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도 있다. 이런 논에서는 벼단을 묶어 말리우도록 하였다. 벼단을 묶은 다음 논두렁에 내다 나란히 가려놓고 말리우되 여러날 지나서 속에 있는 벼단이 밖으로 나오도록 엇바꾸어주도록 하였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요즘 이것이 은을 내고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걷어들여 나라쌀독에 가득 채우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벼이삭들을 잘 말리워 실어들이고있다.

결과 농장에서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면서도 허실을 크게 줄이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현지보도‖ 경쟁열풍 몰아친다

※ 곡산군 덕흥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서 봄내, 여름내 애써 농사를 지어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숱한 낟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포전머리에 나붓기는 붉은기, 가을걷이에 신바람난 농장원들, 강냉이이삭을 가득 싣고 달리는 뜨락또르들의 발동소리…

여기는 곡산군 덕흥협동농장 제5작업반의 강냉이가을걷이전투장이다.

이른아침부터 떨쳐나 강냉이가을걷이전투를 다그치는 이곳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 애국의 땀방울이 흐른다.

전투목표는 높고 아름차지만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떨쳐나선 이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가을걷이를 와닥닥 끝내기 위한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이 더욱 고조된다.

《동무들, 오늘계획도 넘쳐 해제껴 작업반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합시다!》

작업반장의 힘찬 호소가 아침공기를 헤가르며 농장원들의 심장에 혁신의 박동을 더해준다.

마음속으로 경쟁을 걸고 《와—와—》 기세를 올리며 강냉이가을걷이를 다그치는 농장원들에게 날개가 돋친듯싶다.

모두의 일손마다에서 불바람이 인다.

한이삭이라도 허실할세라 눈을 밝혀가며 깐진 일솜씨를 발휘하는 농장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럽다. 앞서거니뒤서거니 이랑을 주름잡아나가는 그들의 잽싼 일솜씨로 하여 분초마다 실적이 오른다.

걸싸게 낫질하는 1분조장 주만길동무의 구리빛얼굴에도, 승벽내기로 강냉이이삭을 따는 분조원들의 얼굴마다에도 구슬땀이 마를새 없다.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려는 모두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런 속도로 나가면 오늘 가을걷이계획도 150%는 문제없습니다.》

작업반장 김명철동무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듯 1분조원들이 어느새 한 포전의 강냉이대를 말끔히 베고 다음포전에 들어선다. 그들에게 뒤질세라 강냉이이삭을 따는 2분조원들의 일손마다에서도 불이 이는듯싶다.

다른 포전에서는 농장원들이 경쟁적으로 뜨락또르적재함에 강냉이이삭을 싣는다. 연방 올라오는 팔뚝같은 강냉이이삭들이 담긴 구럭을 받아 처리하는 농장원들의 일솜씨 또한 번개같다.

강냉이이삭을 가득 실은 뜨락또르들이 잘 정리된 포전도로를 따라 탈곡장을 향해 기세좋게 달려간다.

《한이삭도 허실하지 맙시다.》

강냉이이삭따기에 여념이 없던 선동원 갈성녀동무의 호소는 길지 않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주인된 자각을 깊이 새겨준다.

그렇다. 강냉이 한이삭을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랴.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봄내, 여름내 자기들의 진심을 묻고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온 이 땅에 주렁진 행복의 열매이기에 한이삭, 한알이라도 그렇듯 소중한것이다.

잠시후 현장속보판에 이런 글발이 나붙는다.

《기세좋다. 1분조원들 강냉이가을걷이전투에서 혁신!》

시간이 흐를수록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가을걷이전투장이다.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갈 이곳 농장원들의 그 열정, 그 의지를 담아서 인가 가을걷이경쟁도표의 붉은 줄이 결승선을 향하여 쭉쭉 오른다.

본사기자 박철

농기계작업소에서—본사기자 정영철 찍음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세포군 운반실적을

단상

외진 포전길에서

며칠전 내가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관리위원회를 나섰을 때는 점심시간이였다.

강냉이농사에서 앞장섰다는 제9작업반을 취재하기 위해 부지런히 걷고있던 나는 누군가 열심히 도로를 손질하고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보는 사람도 없는 외진 포전길을 정성껏 닦아나가는 그가 몹시 돋보였다.

《보름전에 보수한 길인데 비물에 패인 모양입니다.》

구리빛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그가 하는 말에 생각이 깊어졌다.

강냉이가을이 시작되였다니 이제부터 이 포전길로는 그들이 온 한해 땀흘려 가꾼 낟알이 운반되게 된다. 그런데 길이 패여 뜨락또르의 적재함이 한번 기우뚱거리면 한두이삭의 강냉이를 흘릴수 있다. 그렇다면 가을걷이기간에 얼마나 많은 낟알을 잃어버리게 되겠는가. 온 나라 농촌들의것까지 다 합친다면…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큰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많은 농장원들이 달려나와 길닦기를 하고있었다.

나는 무심히 밟고지나온 도로를 새삼스럽게 뒤돌아보았다. 포전길우에 뿌려진것이 자갈과 흙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쌀로써 당과 조국을 받들려는 순결한 량심, 진주보석과도 같은 애국의 마음들이 한치한치에 고이고 다져진 포전길,

바로 이런 포전길들이 나라의 쌀창고와 이어져 강성국가건설이 앞당겨지는것이 아닌가.

후더워지는 가슴을 안고 나도 그들과 일손을 잡았다.

본사기자 장은영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진행

3면에서 계속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청년들이 있는 그 어디서나 체육열풍이 일고 혁명적희열과 랑만이 넘쳐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보고자는 청년동맹초급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며 모든 사업을 전투적으로 기백있게 벌려나가는 열혈의 청년일군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함경남도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한인철은 주체청년운동사에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질 이번 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여 우리 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그는 도청년동맹위원회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초급조직들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외국문출판사 동백인쇄합영공장 초급단체위원장 장경일, 성천군 향풍협동농장 초급단체위원장 박순화는 모든 동맹원들이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자기들의 깨끗한 충정을 다 바치였으며 전국의 본보기초급단체의 영예를 빛내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나날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뜨거운 충정이 얼마나 강렬한것인가를 다시한번 절감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백두산밀영강사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초급단체성원모두를 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튼튼히 준비시킨데 대하여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초급단체위원장 김은정은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의 선장답게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게 하기 위한 투쟁에로 동맹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데 대한 룡암포수산사업소 초급단체위원장 최금주의 토론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초급단체위원장 리성남은 초급단체를 힘있는 조직으로 꾸린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사상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꾸준한 인내성과 뜨거운 진정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에게 더 마음쓰며 따뜻이 품어주는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철도성청년돌격대려단 대대장 박성민,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 대장 김동철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죄책감에 모대기던 자기들을 중요초소들에 세워주시였으며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의 값높은 삶을 안겨주시고 사랑과 믿음이 담긴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진정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라고 강조하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 초급청년동맹위원장 박민혁은 동맹원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공장을 공원화, 수림화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초급조직들을 생기발랄한 청년전위대오로 만들어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한 자랑에 대하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림영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채종혁, 웅진광산 초급청년동맹위원장 김철룡은 긍지높이 말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제6려단 려단장 주광철, 북부철길청년돌격대 자강도려단 려단장 한웅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사상의 힘, 자력갱생의 힘으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감으로써 청년돌격대의 전투력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평양애육원 초급단체위원장 김진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초급단체위원장 장미향은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울려퍼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박혁철,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초급청년동맹위원장 김영일은 학생청년들과 청년과학자들속에서 학습열풍과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조직사상생활을 짜고들어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워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초급단체위원장 김옥향은 동맹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해마다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위원장 송철준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청년작업반원들을 불러일으켜 우리 당을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총대병사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갈데 대하여 세포군 현리고급중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지도원 최성철, 포항구역 남향고급중학교 청년동맹, 소년단책임지도원 전용남이 토론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청년동맹일군들이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옳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들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는 문제들도 언급되였다.

토론자들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세우지 못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청년사업을 하는 크나큰 영예와 긍지, 자기 단위의 청년동맹사업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패배주의를 불사르지 않으면 시대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출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였다고 하였다.

토론자들은 청년동맹일군들이 당의 높은 기대와 동맹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청년동맹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청년전위조직으로 만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끝났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는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선군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형직군원림시설사업소 녀성종업원들

북방의 아름다운 녀인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민적의무를 다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며 공민적의무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몇해전 김형직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안해들은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진출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주봉월, 리영실, 김순영, 김향순…

진출자명단에 자기 이름을 적는 그들은 성격과 직업이 각이하고 리상과 꿈도 서로 달랐다. 하지만 당일군인 남편들처럼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 공민적의무를 다해나가려는 마음만은 하나같았다.

사실 도로관리를 비롯한 그들이 맡아안은 모든 일은 누구에게나 생소하였다. 그럴수록 그들은 누구나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열심히 일하였다.

그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년사계절 찬바람과 눈비, 뙤약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청소와 도로수리, 시설물보수정비에 지혜와 정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아직 북방의 얼음이 얼어붙어있던 몇해전 3월 어느날 작업반원들과 함께 얼음을 까고 물도랑을 내던 정창옥동무가 그만 석비레를 갓 펴놓은 길에 쓰러졌다.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도로관리에만 심혼을 쏟아부어온 그였다.

《저야 당일군의 안해가 아닌가요?》

생의 마지막순간에조차 당일군의 안해이라는 자각과 공민적의무를 생각한 정창옥동무, 그의 심정이자 김순영동무를 비롯한 당일군안해 모두의 심정이였다.

이런 결곡한 마음을 안고 리금숙, 최정화, 윤성희, 전영림, 리혜순동무를 비롯한 도로작업반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도로수리와 하수도망, 우수망정리를 도맡아해냈다.

당일군인 남편들과 함께 당정책을 관철해나간다는 이런 자각을 지녔기에 지배인 김순영동무와 심향옥, 홍금화, 박은경, 박혜영, 강옥란동무를 비롯한 잔디작업반원들은 무더위속에서도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끝끝내 력사의 땅에 새 품종의 잔디로 푸른 주단을 펼쳐놓았다.

애오라지 당의 뜻을 충정다해 꽃피워갈 한마음을 안고 당세포비서 김향순동무와 백향숙, 김향림, 림광숙동무를 비롯한 화초작업반원들은 고운 손이 부르트고 잔등에 멍이 지도록 막돌을 져나르고 모래와 혼석을 실어들여 자체의 힘으로 화초온실을 번듯하게 지었으며 낮이나 밤이나 온실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애지중지 정성껏 피워 거리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언제봐야 산뜻하고 깨끗한 도로들, 그 주변의 화단마다에 아름답게 피여난 갖가지 꽃들, 오가는 사람들의 걸음도 마음도 상쾌하게 해주는 푸른 잔디…

그 모습에 깃들어있는 이들의 꿈과 리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일군들인 남편들과 더불어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충정으로 값높이 수놓아가는 이곳 녀성종업원들에게 사람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농근맹일군들의 연구토론회 진행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농근맹일군들의 연구토론회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농근맹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에 관한 사상이 가지는 의의와 당의 의도에 맞게 농근맹원들속에서 4대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서술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은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의 4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갈데 대한 사상은 현시기 동맹교양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이 사상은 농근맹조직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전투대오로 강화해나가는데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상교양사업의 중심과업을 명확히 밝히는것은 모든 농근맹원들을 투철한 혁명가들로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4대교양을 사상교양사업의 중심과업으로 규정해주심으로써 농근맹조직들이 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우리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농근맹조직들에서 4대교양사업을 새맛이 나게 공세적으로 진행할 때 모든 동맹원들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선군시대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더 잘 준비시킬수 있다.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농근맹원들속에서 4대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진실하고 고지식한 진짜배기실농군, 애국농민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동맹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농근맹사상교양사업의 기본임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김윤우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모든 농근맹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

전국의 본보기농장들의 경험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농근맹조직들은 모든 동맹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는 견결한 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동맹사상교양사업의 기본임무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송은 《전동맹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을 간직한 선군혁명의 전위대오로 준비시키는것은 농근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념교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농근맹조직들이 동맹원들을 자기 령도자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닌 선군혁명의 기수들로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과 천출위인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도있게 벌리는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농근맹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을 실천투쟁속에서 빛내여나가도록 하는것이다.

농근맹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며 농업생산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농근맹조직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온 전세대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모든 농근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근로단체출판사 부사장 김춘일은 《농근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도덕교양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이다.

농근맹조직들은 동맹원들속에 고상한 도덕기풍을 세우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인식시켜 그들모두를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 선군혁명의 억센 기수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도덕교양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사상전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 동맹원들의 도덕생활, 도덕기풍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농근맹조직들은 모든 동맹원들이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토론자들은 모든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4대교양에 관한 사상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잘 알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영웅적진군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천군체신소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

신천군체신소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은이 나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슨 일이든지 방법론이 옳게 서야 잘될수 있습니다.》

체신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히 당, 근로단체일군들이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과 그것을 구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동한 사실을 가지고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고있다. 일군들은 자신들부터가 김정일애국주의의 진수를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단위의 당, 근로단체 초급일군들이 종업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민정기동무를 비롯한 체신소의 초급당일군들은 아침모임과 저녁총화시간을 비롯하여 종업원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켜주고있다. 일군들은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혁명실록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애국주의가 구현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다고 생동한 사실자료를 들어가며 깊이있게 해설선전하고있다.

일군들은 종업원들모두가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고향과 일터를 잘 꾸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한몸 다 바쳐 투쟁하는 실천가가 되도록 하고있다.

체신소에는 오래동안 한직종에서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종업원들이 적지 않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들처럼 자기 맡은 혁명과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긍정적소행을 널리 일반화하고있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자기 맡은 체송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체송작업반 체송원이였던 김유천동무와 수십년을 하루같이 통신보장과 체신의 현대화에 기여한 기술자 김덕영동무, 석당체신분소 우편통신원 최춘복동무의 소행이 종업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자기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영예게시판에 소개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도 잘 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어머니당과 숨결을 같이하는 참된 봉사일군

길주군상업관리소 세거리상점 책임자 김선영동무

—중앙식물원에서— 본사기자 김철우 찍음

어린 선물식물관리를 잘해나가고있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길주군에 가면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 전쟁로병들로부터 친딸, 친누이로 불리우고 병사들과 학원원아들로부터는 친어머니로 불리우는 한 녀인이 있다. 길주군상업관리소 세거리상점 책임자 김선영동무이다.

그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이 사랑하고 내세우고있는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 전쟁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왔으며 인민군대원호사업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이런 그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스스로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사람, 남을 위해 자기를 타산없이 바치는 사람이라고 할 때면 김선영동무는 말하군 한다.

하고싶어서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며 남을 위해 바치는 지성은 덕으로 남는다고.

김선영동무에게는 보물처럼 여기는 책 한권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세거리상점 책임자로 임명되였을 때 김선영동무가 스스로 만든 군안의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상품공급일지이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였다. 혁명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혁명렬사들의 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을 잘 돌봐주는것을 그들의 선혈이 스민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자라온 자신이 응당 해야 할 일로, 도리로 여기였던것이다.

자그마한 상점에서 해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혁명렬사유가족과 영예군인가정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맡아하는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였다. 그러나 그는 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김금희, 김영미동무와 함께 힘을 합쳐 해마다 국가적명절들을 맞으며 군안의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갔다. 그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가정들에서 때없이 제기되는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밤낮이 따로 없이 뛰고 또 뛰였다. 김선영동무의 집 앞마당에는 전에 없던 큼직한 닭우리, 토끼우리가 생겨나고 그가 남모르게 걷는 길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그의 부모형제들도 그를 도와나섰다.

—어떻게 하면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을 기쁘게 해줄것인가.

김선영동무는 늘 이런 생각뿐이였다.

언제인가 영남로동자구에서 살고있는 반일애국렬사유자녀의 집을 찾았던 김선영동무는 그의 집에 낡은 텔레비죤수상기가 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상품공급을 해주는것으로 만족해하였으니… 그리고도 한식솔이라구?!)

이런 생각으로 모대기던 그가 다음날 새 텔레비죤수상기를 안고 찾아왔을 때 조계화로인은 그의 뜨거운 진정앞에 고마움의 눈물만 흘리면서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로인은 그것이 김선영동무가 자기 딸을 시집보낼 때 쓰려고 마련했던것이라는것을 썩 후에야 알게 되였다.

그후에도 김선영동무는 때없이 찾아와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닭곰과 토끼곰도 안겨주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봐주면서 조계화로인을 기쁘게 해주었다.

어느해 여름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날은 쌍룡리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리광혁동무의 집으로 가기로 약속되여있었다. 그런데 하루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은 땅속에 잦아드는것만 같았다. 그날따라 몸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런 몸으로 또다시 수십리길을 다녀오자니 어쩐지 지친 몸이 더 아픈것 같았다.

(하루 미룬다고 탓하는 사람도 없겠는데 어떻게 할가?)

이때 딸의 행동을 지켜보던 전쟁로병인 아버지 김종하로인의 말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난 그래도 네가 자기 아버지만을 위하는 그런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구나.》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의 친딸, 친누이가 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그가 이렇게 영예군인의 집을 찾았을 때 집안식구들은 얼마나 반기였던가. 우리 누이가 왔다고, 우리 책임자가 왔다고 하면서 영예군인과 그의 부모들이 혈육보다 더 뜨겁게 대해줄 때 그는 저도모르게 코마루가 찡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김선영동무와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사이의 혈연의 정은 나날이 뜨거워졌다.

읍에서 살고있는 혁명렬사유자녀 김귀옥의 집에서 집수리를 할 때 자주 찾아가 일일이 알아보고 적극 도와나선 일이며 영예군인들의 결혼상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성의껏 차려준 사실, 영예군인가정들에 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 치료기구를 마련해준것을 비롯하여 김선영동무가 군안의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정을 기울인 이야기들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김선영동무의 진정에 넘친 성의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를 친딸처럼, 친누이처럼 여기면서 고맙다는 말을 곱씹군 한다. 그럴 때마다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을 끝없이 위해주는 어머니당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원히 당을 따라 한길을 가자고 고무해주는 김선영동무이다.

그뿐이 아니다.

김선영동무는 딸 송화를 조국보위초소에 어엿하게 내세우고 인민군군인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축구공과 배구공을 비롯한 체육기재들을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보내준 일이며 뭐니뭐니해도 군인들이 건강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약과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닭과 토끼로 곰을 만들어보내준 이야기, 휴가온 인민군군관들의 결혼식을 위해 지성을 바치던 일…

그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만경대혁명학원을 비롯한 혁명학원원아들과 길주초등학원 원아들을 극진히 대해준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혁명학원원아들이 방학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면 김선영동무는 친자식을 만나는 심정으로 그들을 반겨주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해나가도록 고무도 해주었으며 군에 있는 초등학원에도 찾아가 원아들의 생활을 보살펴주군 하였다.

군안의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면서도 바치는 마음이 모자라는것만 같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날마다 찾아하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우리 선영이》, 《우리 책임자》, 《우리 누이》라고 정답게 부른다.

대중의 진실하고 값높은 평가—《우리》! 이것은 김선영동무와 같이 언제나 당과 숨결을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받을수 있는 호칭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외료일군들이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전 우리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았을 때였다. 소장 리청원동무는 최근 연구소가 치료예방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연구집단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암성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몇해전 이곳을 찾았던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김성은동무는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갖추고 훌륭하게 꾸려진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에 깃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옴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선암을 비롯한 암환자들속에서 산생되는 뼈동통을 덜어주며 각종 암의 뼈전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약물을 기어이 연구개발할 결의가 불타올랐다.

이렇게 되여 그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약물개발사업에 달라붙었다.

세계적으로 뼈대사부활제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정밀유기합성기술을 요구하므로 몇개 나라들의 독점물로만 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연구집단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세계약학기술의 최첨단이라고 할수 있는 뼈대사부활제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100%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새로운 형의 약물을 개발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졸레드론산은 지난 시기 개발하였던 뼈의 광물질밀도를 증가시키고 뼈질의 손상된 구역을 복구하여 뼈의 로화를 지연시키며 뼈기능저하나 골절, 뼈변형에 대한 예방 및 치료작용을 함으로써 골송소증은 물론 무균성뼈괴사, 변형성골염, 관절염과 같은 난치성 뼈질환들의 치료에 특효가 있었던 약물보다도 치료효률이 더 높았다.

연구집단의 피타는 노력으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4세대 뼈대사부활제가 개발되게 되였다.

소장은 연구소에서 이룩된 치료예방사업의 성과에는 이렇듯 밑거름이 되여준 고마운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도 함께 깃들어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과학과 기술로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이런 과학자들이 있어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는 더 크게 울려퍼지리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주는 이야기였다.

본사기자 김옥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자식많은 부모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는것이다.

김선영동무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그에게 친자식이라고는 외동딸뿐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식솔처럼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군안의 혁명렬사유가족들과 영예군인들이다. 그들을 위해주느라 어느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다.

혁명렬사유가족들의 가정에 환자가 생기면 보약을 안고가고 며느리가 생기면 첫날옷감을 마련해가고 영예군인의 가정에 옥동자가 태여나면 애기옷과 미역, 산꿀을 안고가고…

몽골 대통령 조선로동당대표단 접견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 몽골대통령이 18일 국가청사에서 의례방문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몽골 정부와 인민의 립장은 확고하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계속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제재책동이 지속되고있지만 몽골은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대통령민족안전 및 대외정책고문, 대외관계성 부상,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몽골 수상이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났다

몽골민주당 위원장인 노로빈 알딴호야그수상이 18일 국가청사에서 이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몽골 대외관계상, 몽골민주당 총비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관계라고 하면서 몽골민주당은 조선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몽골을 방문하신 2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몽골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과 정치,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몽골민주당대표단 회담진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몽골민주당대표단의 회담이 18일 국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몽골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상대측에서 쯔. 오윤다리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민주당대표단 성원들과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당활동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한편 이날 조선로동당대표단은 대통령민족안전 및 대외정책고문, 대외관계상, 울란바따르 시장, 몽골인민혁명당 지도부성원들을 각각 만나 담화를 하였다.

전국기상수문 및 해양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기상수문 및 해양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7일과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기상수문국, 국가해사감독국을 비롯하여 기상수문, 해양부문과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6월 기상수문국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상관측과 예보를 과학화하며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8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발표되였다.

기상수문예보의 실시간정보화체계수립과 해양장기변동,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 등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예보기술과 방법을 개선하고 해양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많은 연구자료들과 제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기상수문부문에서는 《자동우량계자료수집부》, 《일기예보문자동작성방법》, 해양부문에서는 《해양관리에 대하여》, 《압록강하구해양학적특성》 등의 론문들이 높이 평가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론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진행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8일과 19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되였다.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등 과학, 교육기관,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에서 준비한 6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이 제출되였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여러가지 비료와 화학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 자재들의 국산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내놓은 론문들이 현실적가능성과 경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론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우리 나라 외무상일행 이란 출발

이란에서 진행된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 회의에 참가하고 이란을 공식 친선방문하였던 리수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일행이 18일 테헤란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이란외무성 관계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전송하였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1일 11시부터 청춘거리 경기관에서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예술체조 1급경기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니제르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마하마두 이쑤푸 니제르공화국 대통령에게 정영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2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하마두 이쑤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여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이끄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바라는 축원의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전에 니제르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시였다.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은 이에 대해 잊지 않고 심장속에 깊이 간직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 조선을 강위력한 나라로 빛내여나가시는데 대해 탄복한다.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며 조국통일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이룩되기를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우리의 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평양시제2인민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일군들의 환자에 대한 뜨거운 정성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지난 7월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올라와 일을 보던 어느날 저는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였습니다.

이곳 의료일군들은 환자를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렸다고 합니다. 저는 지방의 한 평범한 교육자를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완쾌된 몸으로 퇴원하게 된 저는 마음속으로 고마운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리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함흥수리동력대학 교원 강경복

대결광신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총포사격도발보다 더 엄중한 적대행위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른바 《풍선작전》의 명목밑에 삐라살포용포까지 끌어들이며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심리모략전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이러한 속에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삐라살포행위에 더욱 열을 올리는 괴뢰당국의 망동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빠진 북남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몰리우고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우리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적대행위로서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한다.

반공화국삐라살포는 우리에게 총포탄을 쏘아대는것보다 더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지금까지 괴뢰들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한 고리로서 삐라살포행위에 대대적으로 매달려왔다.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라고 하면 비군사적인 전쟁행위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있다. 상대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감행되는 심리전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날 침략행위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

허위와 날조, 기만과 위협공갈 등으로 일관된 심리전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데서 물리적폭발력보다 더 엄중한 파국적후과를 미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것도 이때문이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대결정책의 산물이며 북침전쟁도발기도의 뚜렷한 표현으로서 남조선괴뢰들이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새 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극히 무모한 도전행위이다.

괴뢰들의 삐라살포소동은 우리 인민들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신성한 최고존엄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악선전, 비방중상으로 일관되여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힘에 의한 군사적위협공갈만으로는 우리를 결코 어째볼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자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기 위해 비렬하게도 심리모략전에 악착스럽게 매달렸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삐라살포와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등 이전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지되였던 비방중상행위들을 고스란히 재현시키였다. 또한 《대화의 문을 닫아매고 군사연습, 삐라살포 등으로 북을 압박》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그것을 《대북전략》으로 내걸고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의 문어구로 바싹 몰아갔다. 이러한 망동이 골수에 꽉 들어찬 《체제통일》망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괴뢰보수패당이 그 무슨 《급변사태》라는것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중상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잠긴 우리 인민에게 총부리를 내대고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삐라살포놀음에 광기를 부린것은 천추만대를 두고 씻지 못할 최악의 민족반역행위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은 바뀌였지만 괴뢰통치배들의 대결야망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그것은 삐라살포와 같은 동족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행위가 현 괴뢰집권세력에 의해 묵인되고 적극 조장되고있는 사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우리는 북남사이에 비방중상을 중지하는것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뢰조성》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외워대던 남조선당국자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들은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화전량면전술》이니 하고 모독하고 외면하였을뿐아니라 《심리전을 통한 북의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로 대응》해야 한다고 반공화국대결의 독기를 내뿜으면서 북침전쟁불장난소동과 함께 삐라살포놀음에 더욱 미쳐날뛰였다.

남조선당국자가 집권 1년을 계기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미쳐돌아가는 인간쓰레기들을 자기 집에 끌어들여 환대를 하고 추어올리는 놀음을 벌린것을 놓고도 삐라살포가 과연 누구에 의해 저질러지고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비방중상의 중지에 관한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유린하고 란폭하게 짓밟고있는 장본인도 남조선당국이다.

지난 2월 14일에 있었던 북남고위급접촉때 남측대표는 《신뢰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느니, 《비방중상을 하지 않을테니 지켜봐달라.》느니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대결적본색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극에 지나지 않았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괴뢰군부패거리들은 《〈대북심리전〉은 비방중상과 무관계》하고 북남고위급접촉에서도 론의되지 않았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더욱 엄중한것은 남조선당국의 삐라살포행위가 미국상전과 야합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절정에 달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욱 악착스럽게 감행되고있다는것이다.

허위와 모략, 날조로 일관되여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신성한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비방중상중지에 관한 북남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파기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입이 열개라도 비방중상중지에 관한 북남합의를 뒤집어엎은 저들의 책임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얼마전 북남고위급접촉 우리측 대표단은 대변인담화를 통해 그 무슨 《풍선작전》이라는 간판을 단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남조선당국의 배후조종하에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른 사실을 폭로하고 그에 대해 경종을 울리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의 대결자세와 《대화》타령사이에 어느것이 진짜이고 가짜인가를 신랄히 까밝힌 너무도 정당한 규탄이고 충고이다.

그런데 괴뢰들은 그에 응당 귀를 기울일 대신 저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삐라살포행위를 계속할 도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청와대패거리들은 《비방중상중단합의를 준수》해왔다느니,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다느니 하고 강변하는가 하면 괴뢰군부것들은 《사실무근》이니 뭐니 하고 발뺌을 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부추기는 용납 못할 망동이다.

범죄적인 삐라살포행위로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지어 전쟁위험까지 몰아오는 장본인들이 마치도 북남관계문제에 왼심이라도 쓰는듯이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실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에 대해 떠들기전에 속에 품은 칼부터 꺼내놓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시급히 중지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기만적인 언사보다 진실한 행동이 선행되여야 한다. 극도의 대결망동인 삐라살포행위를 중단하는것이야말로 파괴된 북남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될것이다.

박 철 준

죄를 지은자들의 가소로운 변명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풍선작전》에 종지부를 찍는것으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적요구에 대해 《유감》이니 뭐니 하며 당치않은 변명을 늘어놓고있다.

괴뢰통일부와 국방부가 줄줄이 나서서 당국이 삐라살포를 조직, 지원한다는것은 《사실무근》이라느니, 비방중상중단합의를 《준수》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여론을 기만하고있다. 청와대패거리들은 《법적근거없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수 없다.》고 아닌보살을 하면서 손님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이야말로 제볼장을 다 보는 고양이가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저들의 도발적인 삐라살포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북남관계에 미치는 파국적영향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제각기 삐라살포에 매달리던 어중이떠중이들을 《대북풍선단》이라는 전일적인 조직체에 묶어놓고 미국과 일본에서까지 모략단체들을 끌어들여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삐라살포에 나서는 떨거지들과 보수단체들에 괴뢰당국의 예산이 지출되고있는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사실무근》이니, 《준수》니 하고 떠들 체면이 있는가.

남조선에서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감행될 때마다 괴뢰군부가 전연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이 즉시적인 사격태세를 유지하게 하고있다. 《풍선작전》의 군사적지원을 위해 괴뢰군부는 《대북심리전》부대를 내오고 임의의 곳에서 하루에 8만장의 삐라를 찍어 살포할수 있는 기동형삐라제작장비를 보유하고있다. 괴뢰군부가 《대북심리전》용으로 1 300여종에 달하는 삐라원고를 자료화해 보유하고있다는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한편 괴뢰경찰당국도 인간쓰레기들에게 삐라살포수법까지 대주면서 언론에 알리지 말고 하라고 떠밀어주고있다. 그런데도 《사실무근》이고 《준수》라고 말할수 있는가.

군사분계선일대는 가장 예민한 지역이다. 때문에 괴뢰당국의 승인없이는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수 없다. 그런데도 이곳에서는 별의별 어중이떠중이들이 제멋대로 활개치며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열을 올리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의로운 뜻을 품고 평양방문길에 올랐던 통일사절들을 무지막지하게 철창속으로 끌어간 군사깡패들이 삐라살포에 나서는자들에 대해서는 모르는척 하며 의도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적극 뒤받침해주고있기때문이다. 북남사이에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자 《대북심리전은 별개》라고 고아댄것도 괴뢰군부패거리들이며 신형삐라포탄을 개발, 배비하고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살포소동을 벌린것도 그들이다. 그런데도 비방중상중단합의의 《준수》니 뭐니 하고 나발질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자들인가.

괴뢰들이 그 무슨 《법적근거》를 운운하며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의 책임을 모면하려드는것은 밝은 세상에서는 통할수 없는 건주정이다.

이전 시기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남조선에는 극우보수단체들의 도발적인 삐라살포를 규제할수 있는 법적수단들이 얼마든지 있다. 현 괴뢰당국도 통일부의 승인없이는 경제협력은 물론 우리와 단 한푼의 돈과 한번의 물건거래도 이루어질수 없게 제약해놓고있는 《5.24조치》를 유지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마음만 먹으면 북남관계개선을 해치는 범죄적인 삐라살포행위를 얼마든지 중지시킬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이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법적근거》따위를 외우며 삐라살포를 묵인하는것은 그것이 저들의 작전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반증하는것이다.

조성된 현 사태는 남조선당국이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중지할 꼬물만 한 의사도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우리에 대한 가장 악랄한 심리전이고 민족적합의에 대한 엄중한 배신이며 위험천만한 전쟁도발행위이다. 거듭 천명하는바이지만 삐라살포행위에 종지부가 찍혀지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낯뜨거운 변명은 그만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반공화국《풍선작전》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은 변명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만 증명할수 있다.

리 효 진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폭로단죄

삐라살포는 체제대결을 위한 악랄한 수법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는 괴뢰패당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괴뢰당국이 보수단체들과 군부까지 발동하여 동족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범죄적인 삐라살포행위에 미쳐 날뛰는것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유치한 망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련이어 감행되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북남당국사이의 합의를 짓밟고 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는 비렬한 반통일책동이라고 규탄하고있다.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각계 단체인사들은 극우보수단체들은 물론 군병력까지 동원시킨 삐라살포책동의 목적은 북을 자극하여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데 있다고 까밝히면서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무모한 반공화국심리모략소동은 하루빨리 중단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보수당국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초긴장상태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집권세력이 진정으로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방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북남사이의 합의를 지켜야 하며 삐라살포놀음을 벌리는자들을 즉시 처벌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많은 진보적단체들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보수당국의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대결망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단체들은 당국이 말로는 당치않은 구실을 대며 삐라살포를 금지시킬수 없다고 하지만 실지로 그것을 막을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무조건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단체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으로 북남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당국이 이번에는 삐라살포행위로 전쟁위험을 몰아오고있다고 성토하면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지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현 집권세력의 대결정책을 반영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당국이 북을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킬것을 뻔히 알면서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강행에 이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매달리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이것은 당국의 그 무슨 《대화》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것이 모두 공념불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하였다.

괴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은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지금 괴뢰패당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그 규모와 도수에 있어서 일찌기 전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악랄하고 저렬한것이다. 지난 8월에도 삐라와 미국돈, 유치한 물건짝들이 군사분계선전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수십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살포되였다. 괴뢰들은 어떤 날에는 120만장에 달하는 삐라와 2 250권의 불순종교선전물을 풍선에 매달아 우리측 지역에 날려보내였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해치며 주민들을 유혹하기 위한 불순한 흉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괴뢰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위기국면에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는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적대행위이다. 그것은 현 괴뢰집권세력이 써먹고있는 가장 악랄한 체제대결수법의 하나로 되고있다.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한사코 해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힌 괴뢰패당은 삐라살포에 더욱 기대를 걸면서 최근 그것을 제각기 벌리던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그 무슨 《대북풍선단》이라는 전일적인 조직체를 꾸며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까지 모략단체들을 끌어들여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합세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이 범죄적인 삐라살포소동에 기승을 부리도록 하고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를 괴뢰당국이 직접 조직하고 적극 떠밀어주고있다는데 있다. 괴뢰당국은 그 무슨 《체제의 특성》이니, 《언론의 자유》니 하며 삐라살포행위에 저들이 관계하지 않는듯이 여론을 내돌려 연막을 치고 그뒤에서 삐라살포도발에 미쳐날뛰고있다.

몇가지 실례만 놓고보자. 지난해 우리의 건군절을 겨냥하여 악질보수깡패들을 내몰아 우리를 터무니없이 헐뜯는 수많은 삐라들을 뿌리게 하였으며 인간쓰레기들이 개성공업지구가까이에서 삐라살포에 광분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망동을 부리게 하였다. 또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괴뢰군무력을 전투태세에 진입시킨 상태에서 우리를 향해 등탑을 켠다 어쩐다 하면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에 열을 올리게 하였다.

당시 불순한 삐라들을 직접 살포한 한 인간쓰레기가 언론과의 회견에서 저들이 당국의 아무러한 저지도 없이 민간인통제선일대에 접근하여 마음대로 삐라를 뿌렸다고 줴쳐댄 사실은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철두철미 괴뢰당국의 직접적인 비호와 조장밑에 실행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실제로 삐라살포가 진행될 때마다 괴뢰군부는 전연에 배치된 모든 포병부대들이 즉시적인 사격태세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괴뢰경찰당국은 도발에 나선자들에게 삐라살포수법까지 대주고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살포를 단행하라고 떠밀어주었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련천, 파주 등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감행된 수십만장의 삐라살포는 전적으로 괴뢰당국의 작전과 계획에 따라 벌어진것이다.

삐라살포에 직접 나서고있는것은 괴뢰군부이다.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비방중상중단과 대북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느니, 《군부의 대북심리전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추진할 방침》이라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우리 공화국의 전지역에 라지오와 TV전파를 동시에 송출할수 있는 최신기동중계장비와 《K—9》자행포용 신형삐라살포탄을 개발할것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지난 3월 24일에는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인간쓰레기들이 삐라살포놀음을 마음놓고 벌리도록 조건을 지어주는 범죄적망동을 저질렀다.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는 삐라살포가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자 바빠맞은 괴뢰패당은 민간단체들의 삐라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느니,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니 하고 불어대며 반공화국도발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괴뢰들은 우리측 지역에 대한 삐라살포를 《풍선작전》이라고 명명하고 군사적대비태세까지 철저히 갖추게 하고있다.

괴뢰들이 삐라살포소동에 군사작전까지 따라세우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긴장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여러차례 바뀌였지만 지금처럼 괴뢰집권세력이 앞장에 서서 분별을 잃고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심리모략전에 미쳐날뛴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는 이미 반공화국삐라살포는 가장 로골적인 심리전이고 북남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이며 공공연한 전쟁행위로 된다는것을 엄숙히 경고한바 있다.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너절한 삐라살포행위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무한한 충정을 삶의 근본으로,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기고있는 우리 전체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도발이다.

범죄적인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위한 기본수단으로 삼으면서 그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 괴뢰집권세력의 도발적처사로 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꽉 막히고 긴장과 전쟁위험만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현 철

핵무기전파의 장본인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는 미국의 기만적인 정체가 날이 갈수록 계속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정부가 비밀해제한 100페지이상에 달하는 문건들이 공개되였는데 거기에 미행정부가 1969년에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한 사실이 기록되여있다고 한다. 그때로 말하면 제3차 중동전쟁에서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아랍령토의 방대한 부분을 강탈한 이스라엘이 아랍의 맹주가 될 야심밑에 핵무장화를 다그치고있던 시기이다.

문건들에 의하면 1969년 9월 당시 미국집권자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는 밀담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폭탄제조를 계속할 립장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시키고 디모나핵시설을 사찰한다 어쩐다 하며 마치도 핵무기전파방지를 위해 애쓰는듯이 부산을 피웠지만 실지로는 이스라엘의 핵무기제조를 각방으로 뒤받침해주었던것이다.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가 중동의 위협으로 된다는 국제적비난이 비발쳤지만 미국은 핵무기가 중동에서의 그 무슨 전쟁을 막을수 있는 《억제력》으로 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묵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성원국들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관측통들은 유태복고주의정권을 비호두둔하는 미국의 진속은 바로 이스라엘을 핵으로 무장시켜 아랍세계를 공격하기 위한 핵전초기지로 만들려는데 있다고 평하였다.

로씨야의 한 군사론평원은 디모나핵시설에서 극비밀리에 핵무기개발을 추진하여온 이스라엘은 이미 수십년전에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핵무기전파의 책임은 바로 미국에 있으며 이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의 핵무기전파책동은 결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원자력기술협력의 간판밑에 1950년대에 벌써 일본인들의 반핵감정을 완화시키고 일본본토에 핵무기를 배비할 정책을 작성하였다. 1972년에는 일본당국과 오끼나와를 반환하는 대신 《유사시》 일본에로의 미국핵무기반입을 허용할데 관한 비밀합의를 이룩하였다. 2010년에는 나토성원국들과 핵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론의하였다.

벨지끄, 네데를란드 등 유럽나라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당시 미국은 나토성원국 군사기지들에 배비되여있는 미국제 핵폭탄들을 현대적인것으로 교체, 배비할데 관한 비밀협정을 이 나라들과 체결하였다고 한다. 벨지끄에서만도 끌레인브로겔공군기지에 저축되여있는 미국제 《B-61》핵폭탄 20개가 새로운 핵폭탄들로 교체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것도 미국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곳곳에 핵무기를 전파시킨것도 다름아닌 미국인것이다.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핵전파를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주범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핵전파의 주범인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을 떠들면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주문 외우듯 하는 가소로운 처사에 국제사회는 침을 뱉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에 항거하는 팔레스티나인들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

전염병피해 계속 확대

— 싱가포르에서 13일 또 한명이 뎅구열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최근 1주일동안에 나라에서는 약 300명의 뎅구열환자가 등록되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뎅구열환자가 증대되고있다. 12일 이 나라 후생로동성은 전국적으로 뎅구열환자수가 11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서아프리카나라들에서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12일현재까지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네를 비롯한 서아프리카나라들에서 이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수가 4 780여명으로 늘어나고 그중 2 400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한편 민주꽁고에서도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14일 이 나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사망자수가 3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대를 두고 피의 결산을 할것이다

어느덧 139년이 되였다. 1875년 9월 20일은 일본침략자들이 《운양》호사건을 조작한 날이다.

이때로부터 일제의 조선침략은 본격적으로 감행되기 시작하였다. 1876년에는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1905년과 1907년에는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으며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날강도적으로 조작하여 우리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운양》호사건은 무력에 의한 일제의 조선침략의 서막으로 되였다.

《운양》호사건의 전과정은 일제의 포악성과 야만성, 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19세기 중엽 일본이 실시한 대조선정책은 《정한외교》정책이였다. 이것은 조일간의 새로운 《국교재개》협상을 요구하는 불순한 외교문서(서계)를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도발을 걸어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조선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전락시키기 위한 침략정책이였다.

《운양》호사건은 처음부터 조선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행한 계획적인 무장도발행위였다.

이에 대하여 륙군대장 야마가타는 《1875년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소좌는 조선연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장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조선에 대한 시위운동을 실시하라는 내적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으며 참의 기도는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이미전부터의 목적을 단숨에 달성하려고 하였다.》고 토설하였다.

일제는 1873년 가을에 이미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결정하였으며 그후 침략선들을 우리 나라 동남해안일대에 들이밀어 정탐과 무력시위를 감행하였다. 1875년 5월에는 그 무슨 발포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에 불법침입시켰다. 그해 9월에는 《항로측량》의 구실밑에 《운양》호를 우리 나라 연해에 또다시 침입시켰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하는것을 당면목표로 내세우고있던 일본침략자들은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 《운양》호에 될수 있는대로 더 횡포하고 포악하게 행동할것을 지시하였다. 《운양》호에 탄 침략무리들은 이 지시를 그대로 받아물고 강도적으로 행동하였다.

9월 19일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침입하여 월미도일대에서 수로 등을 정찰하는 행위를 감행한 침략자들은 그 다음날인 9월 20일 우리 나라 서해의 중요군사요새이며 서울을 지키는 요충지였던 초지진포대가까이로 기여들었다.

초지진의 조선수비병들은 침략자들에게 세찬 불벼락을 안기였다. 애초부터 무장도발구실을 찾지 못해 발광하던 침략자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초지진포대에 맹렬한 포사격을 감행해나섰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침략무리는 방어시설이 약한 항산도와 영종도를 습격하여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륙하였으며 야만적인 파괴략탈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악랄성과 교활성은 그 이후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의 범죄적진상을 가리워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1875년 11월 《정한외교》정책의 변종인 《평화협상외교》정책을 내놓고 조선봉건정부에 예속적인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모략을 꾸미였다. 그것은 《운양》호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워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킨다는것이였으며 군사적수단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측을 강박하고 《굴복》시킨다는것이였다.

교활하고 파렴치한 일본침략자들은 그후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1876년 1월 또다시 침략함대를 강화도에 침입시키고 불평등조약을 강요해나섰다.

일본침략자들은 무력행사의 방법으로 《조약》을 체결할 심산밑에 함포까지 쏘아대면서 《〈운양〉호에 끼친 손해배상을 내라.》, 《손해배상을 못하겠으면 대신 〈조약〉을 체결하자.》고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하였다. 지어 저들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렇게 일본침략자들은 대포와 군함에 의한 로골적인 협박, 공갈로 1876년 2월 27일 12개 조항으로 된 불법무효한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무력에 의한 조선침략의 서막을 열어놓은 일본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완전히 비법강점하고 40여년동안에 걸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갖은 범죄적만행을 다 저질렀다.

과거범죄에 대한 성근한 반성과 배상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 의무이고 력사적과제이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죄많은 과거사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범죄력사 그자체를 영영 지워버리려 하고있다.

일본은 과거청산에서 그 어떤 오그랑수도 통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력사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본사기자 박 송 영

ㄱ-41147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